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1.10(금)

미 주

- **美, 차량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 발생**
 - 1.2. 언론은 새해 첫날 美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에서 사망했다 보도
- **주요 외신, ISIS에 의한 미국 본토 위협 가능성 제기**
 - 1.2 언론은 1일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현장에서 ISIS깃발이 발견되는 등 ISIS의 사건 연관을 추정 중이며, ISIS가 시리아의 권력 공백을 틈타 조직을 재건하고 미국 본토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
 - ※ 언론은 '26까지 예정된 스테이리크 미군 철수계획과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온 FBI 축소 등 정부 개편으로 인해 테러 조직의 숨통이 트이고 미국의 대테러 역량은 축소될 것이라 부언

유럽

- **佛, '테러 촉구' 알제리 인플루언서 체포**
 - 1.3 프랑스 경찰은 자신의 SNS 커뮤니티에 프랑스에서 테러 감행을 촉구했던 알제리 출신의 인플루언서를 체포했으며, 언론은 용의자가 알제리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겨냥한 협박 게시글을 남겼다고 부언
 - ※ 언론은 체포된 용의자가 이미 프랑스 경찰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으며, 지난해 4월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부언
- **튀르키예, "ISIS 핑계로 PKK 독려해선 안돼"**
 - 1.7 튀르키예 외무장관 「하칸 피단」은 자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시리아 내 쿠르드족 계열 반군 조직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서방에 경고하며 PKK와 쿠르드민병대가 제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했다 보도
 - ※ PKK는 튀르키예와 美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지만 튀르키예는 쿠르드민병대도 PKK 계열로 간주하는 반면 美은 시리아 내전에서 쿠르드민병대가 주축인 시리아군을 지원하고 있다 부언

중 동

○ ISIS, 온라인 점조직으로 영역 확대

- 1.6 언론은 테러단체 ISIS가 본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사실상 와해 됐지만, 텔레그램과 뉴스레터 발행, 다크웹 공유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'자발적 테러범'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도

※ 또한, ISIS가 최근 종교적 이념 동조보다는 개인을 상대로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'외로운 늑대'들에 의한 테러를 유도하고 있다고 부언

○ 예멘 후티, 홍해 美 항모 USS투루먼호와 이스라엘 공습 주장

- 1.7 언론은 후티軍이 홍해 북부에 주둔 중인 美 해군 항공모함을 미사일 2기와 4대의 무인기로 공격하고 이스라엘 본토도 공습했다는 공표를 UN 예멘 파견 특사가 수도 사나에 도착했을 발표했다고 보도

※ 미영 연합 해군은 후티軍 지역에 정기적으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하면서 후티軍의 반격도 강해졌고 최근에는 미 해군 전함들과 항공모함까지도 공격했다 부언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수도 「아부자」 인근 학교서 폭발로 2명 사망

- 1.7 언론은 나이지리아 수도 내 이슬라미야 학교에서 급조폭발물을 조작하던 남성 2명이 폭발로 사망하고 2명이 심하게 다쳤으나, 다행히 폭발 당시 학교는 방학 중으로 학생들은 없었다고 보도

※ 나이지리아 서북부와 중부에서는 '반디트'로 불리는 현지 무장단체의 민간인 공격이나 납치·살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부언

아·태평양

○ 파키스탄, 발루치스탄 해방군이 자행한 버스테리로 수십명 사상

- 1.5 언론은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서 분리주의 반군인 발루치스탄 해방군이 폭발물이 장착된 자동차를 몰고 국경 수비대 호송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탑승객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보도

※ 언론은 발루치스탄은 광물이 풍부해 외국 자본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나, 원주민인 발루치족에게는 혜택이 없어 독립을 주장하며 군인과 노동자들은 공격하곤 한다고 부언

이란, 케르만市에서 「솔레이마니」 추모식 中 폭탄테러

- '24.1.3 이란 케르만市 동부에서 열린 「가셈 솔레이마니」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추모식 도중 2차례의 폭탄테러로 103명이 사망하고 284명이 부상



<폭발발생 장소>

※ 이란 정부는 1979년 이래 이란에서 발생한 사건 중 치명적인 테러 사건으로 평가

- 테러리스트들은 4주기 추모식이 진행 중이던 순교자 묘역 부근에서 10분 간격으로 연달아 자살 폭탄테러를 자행

- 사건 직후, ISIS-K가 성명을 통해 테러 배후를 주장하였으며, 언론 매체인 아마크 통신(Amaq)을 통해 테러리스트 사진을 공개

- 이와 관련, 「에브라힘 라이시」 이란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에 '미국과 이스라엘이 ISIS와 연계되어 있다'고 비난

- 이에, 미국 정부는 해당 공격 전 '이란 영토 내 테러활동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나, 해당 정보가 활용되지 못했다'고 발표

⇒ 최근 ISIS 등 국제테러단체 활동 및 선전·선동 가능성이 증대되는 만큼 관련 동향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

< ISIS-호라산 지부(ISIS-K) >

- **(목표)** 호라산 지역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* 이란·아프가니스탄·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지칭하는 옛 지명
- **(테러단체 지정)** UN('19.5), 미국('16.1), 호주('17.11), 인도('18.6)
- **(활동수법)** 도시에서는 軍警 및 정부청사·다중운집 장소 대상 자폭테러, 지방에서는 도로매설 폭탄테러·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- **(생성배경)** '아프간 탈레반'·'파키스탄 탈레반' 조직에서 소외된 중견 간부들(특히, 파키스탄 부족 자치지역 출신)이 이탈, ISIS에 충성맹세 후 결성
- **(주요활동)** ①'17.8월 카불 시아파 모스크 테러(사망 30)
러시아 공관원 2명 포함
②'22.9월 카불 소재 러시아 대사관 자폭테러(사망 6)
③'23.1월 카불 소재 외교부 청사 앞 자폭테러(사망 20)
④'24.3월 러시아 크로커스 시티홀 총기테러(사망 133)

